부서지고 녹슬고… 위험한 탑동 테마거리

일부 시민, 파제벽 위 걷고 해녀 전용 계단까지 오고가 행위 잦은데 금지안내 없어 안전사고 우려에 '불안불안'

목재계단·배수구 등도 파손 시 "안전 점검 지속할 것"

28일 제주시 탑동 테마거리를 찾은 한 시민이 파제벽과 해녀 전용 계단을 잇는 목재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계단 일부 층이 심하게 부서져 있는 모습이다. 이상국기자

바다를 낀 제주시 탑동 테마거리에서 '위험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거리 곳곳 시설물들은 파손된 채 방치돼 안전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시 건입동 탑동 테마거리에는 산책을 하러 온 시민들로 가득했다. 이 중 일부는 테마거리와 바다 사이 설치된 파제벽(파도 등이 도로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위로 올라가 산책을 했다. 또 파제벽 아래 쪽에 시설된 계단까지 내려가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도 있었다. 이 계단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갈 때 이용하는 해녀 전용 계단이다.

파제벽 위는 폭이 50cm 가량으로 좁은데다가 자칫 발을 헛디딜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파제벽 위를 건너 해녀 전용 계단까지 들어서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금지 표시 등이 없어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파제벽과 해녀 전용 계단을 잇기 위해 설치된 3층 짜리 목재 계단은 일부 층이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해녀 전용 계단의 상태는 더 심각했다. 계단과 콘크리트 사이가 심하게 갈라지고 안에 박힌 철근이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했다.

테마거리와 인도를 잇는 계단 바로 아래에 설치된 일부 배수구도 파손 정도가 심각했다.

라마다 호텔 맞은 편 구간에 위치한 배수구는 이미 녹이 슨 지 오래돼 원래의 색깔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손으로 모서리 부분을 만지니 금방 잔해물이 뜯겨 나갔다. 배수구 아래에는 녹슬어 부서지면서 떨어진 잔해물들이 쌓여 있었다.

이날 탑동 테마거리를 찾은 관광객 A(57)씨는 "경치는 좋은데 가까이서 보니 녹슬고 부서진 곳이 많아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민원이 제기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 탑동 광장 내 농구대 뒤편에 위치한 배수구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파제벽에 설치된 목재 계단과 어장 진입로 계단에 대해서도 매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시는 지난 5월 22일 민원이 제기된 목재 계단 1개, 어장 진입로 계단 1개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해 오는 6월 17일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광장 너머 라마다 호텔 맞은 편에 설치된 배수구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파제벽 위로 올라가거나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9일 금요일 음 4월 7일 (14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17℃, 낮 최고 기온은 23~25℃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해무가 낄 것으로 예상돼 조업 선박들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5:26 / 해짐 19:37	달뜸 11:12 / 달짐 00:28
물때	만조 03:24 / 15:13	간조 10:17 / 21:53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8/23℃
모레	구름 많음	18/2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비엔날레 내년 5월로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제2회 제주비엔날레'가 내년 5월 개최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은 오는 8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정된 '2020 제2회 제주비엔날레'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내년 5월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계획된 개최 일정은 6월 17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였다.

제주도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20개국 70여명에 이르는 국내외 작가들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현재의 추세로는 해외 작가들의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연내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6월 4일부터 도내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도 사전 예약제 등 부분 개관이 준비되고 있다. 도립미술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고 시간당 5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해 재개관한다. 송은범기자

말라죽는 바닷속 해송 주범은 '기생 말미잘'

문섬 등 서식지 폐사 확인 녹색연합 "당국 무관심… 원인 조사·대책 마련을"

해송에 말미잘이 기생한 모습. 사진=녹색연합 제공

제주 바닷속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산호인 해송이 기생 말미잘에 의해 급격히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이 28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귀동 문섬과 범섬 일대 바닷속에 서식하는 해송에 담홍말미잘이 기생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해송은 기생한 담홍말미잘 탓에 영양분을 뺏겨 앙상하게 말라 죽어 가고 있었다.

담홍말미잘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양생태계 변화에 민감한 난류성 지표종이며 문섬과 범섬 일대는 국내 최대 해송 서식지이다.

특히 담홍말미잘은 초기에 해송류의 뿌리와 줄기, 가지에 한 두 개체씩 붙어 기생하다가 점점 서식영역을 확장하면서 해송 가지 전체를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홍말미잘에 의한 해송 폐사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형제섬 일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연합은 해송 폐사가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더 늦기 전에 조사단을 구성해 해송뿐 아니라 보호를 받는 모든 산호충류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바다의 소나무'라고 불리는 해송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이상민기자

수도권 청년 절반 "제주 이주 의향 있다"

제주도, 청년인식 조사 결과

수도권 청년(만 25~49세)의 51.5%가 '제주 이주 의향'을 드러냈다. 제주의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반면 '이주할 의향이 없다'는 48.5%는 '일자리·경제활동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0세 미만의 성인 2012명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경제활동 ▷교육 ▷출산·보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교통·생활편의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삶의 질 평가 시 정책 중요도 ▷거주 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요도 ▷제주도 이주의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 이주의향을 물은 조사결과 '이주할 의향이 아주 많다'(5.3%), '이주할 의향이 약간 있다'(46.2%), '이주할 의향이 별로 없다'(31.7%),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다'(16.8%)로 나타났다.

이주 의향의 주요 사유로는 '제주의 주거환경이 좋아서'(60.5%), '제주의 문화·여가시설 환경이 좋아서'(26.4%)로 조사됐으며, 이주의향이 없는 사유는 '일자리·경제활동 환경이 좋지 않아서'(46.9%), '교통·생활편의 시설 환경이 좋지 않아서'(23.6%) 등이었다.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7점을 만점 주거 부분이 6.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생활편의시설 6.20점, 보건·의료 6.08점, 일자리·경제활동 5.95점, 문화·여가시설 5.70점, 교육 5.56점 등 순이었다. 오은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3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법회 · 제28회 붇다대상 시상식

사단법인 붇다클럽
총회장 조 건 형

제3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 및 제28회 붇다대상 시상식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시 : 2020년 6월 25일 (목) 19:00
장 소 : 제주 칼호텔 2층 대연회장

행사 내용
○시상식 : · 제28회 붇다대상 시상
○기념사, 격려사, 축사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

■ 주 최 : 제주전통문화대축제위원회 ■ 주 관 : 사단법인 붇다클럽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 행사문의 | 사단법인 붇다클럽 사무국(064.751-1080), 사무총장 문 성 흠 010-6503-1238

사단법인 붇다클럽 총회장 조 건 형 합장

제28회 붇다대상 공모

본 클럽에서는 평화실천 사업과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전통문화를 보존 · 계승 발전하고자 이 분야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공로를 내 · 외에 알려 자긍심을 심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ㅁ 공모 분야
1. 제27회 붇다 대상 공모
○ 시상부문 : 3개 부문(제주 전통문화예술 부문, 사회봉사 부문, 효행 부문).
○ 선발인원 : 각 부문별 1명.
○ 포상내용 : 각 부문별 상패 및 포상금 100만원.
○ 추천대상 : – 제주 전통문화예술 부문 :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부문 보존과 계승발전에 공이 많은 자로 그 공적이 우수하고 사회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사회봉사 : 평소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제주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우수 봉사자 개인 또는 단체.
– 효행 부문 :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하여 효행심이 높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5월 27일(수) ~ 6월 11일(목)까지
○ 접수방문 : 이메일 inno0423@hanmail.net 또는 붇다사무국 직접방문 접수
○ 우편접수 : ㊀63208 제주시 이도2동 314-2 현원아트빌 304호(064-751-1080)
○ 접 수 처 : 사단법인 붇다클럽 사무국 연락처 064-751-1080, 사무장(김은이)010-2715-7067

| 주최 : 제주전통문화대축제위원회 | 주관 : 사단법인 붇다클럽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 신입회원가입안내 · 자격 : 만 55세미만 기혼 남성불자로서 성실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 분 문의처 : 제주시 동광로80(이도이동) 현원아트빌 304호 T.064.751.1080, F,064.757.8287